회원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유대 강화

전 재 풍
(한국전력공사 전원계획처장)

電氣學會의 역할에 대해서 學界에서는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관련 業界에 從事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물론 學會는 學界를 중심으로 한 學術交流와 親睦이 주목적이겠지만 工學의 主目的이 産業에의 應用이므로 純粹 學問뿐만 아니라 關聯産業의 懸案問題에도 깊은 關心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産業發展은 技術開發 努力보다 普遍化된 技術의 소화나 勞動集約商品에 의존하여 産學協同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으며 學界에서도 學術 水準의 國際競爭力 確保에 급급했으나 '90년대는 工學發展이후 가장 두드러진 技術 革新期가 되고 技術의 高度化는 앞으로도 계속 가속될 展望이다.

21世紀의 工業先進화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産·學·硏의 協同이 필수적인 바, 學會가 그 主導的 역할을 잘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産業界 會員의 적극적 參與를 誘導해야 한다.

産·學 協同基盤 造成을 위해서는 産業界의 積極的인 支援과 參與가 要求되며 學會 自體에서도 이를 誘導하도록 努力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學會의 發展은 根本的으로 어느 特定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고 會員 個個人들의 參與 意慾이 있어야 한다.

上司의 권유등에 의해 受動的으로 學會에 가입할 뿐 學會활동에는 關心을 가지지 않는 名目的인 會員數 增加 보다는 實勢面에서의 會員數 增加가 重要하며 産業界 會員들의 參與 誘導를 위해서는 學問的인 次元과 함께 각 會員들이 關心을 가질 수 있는 分野를 많이 取扱해야 한다.

技術開發은 學問的인 창의성만이 決定的 要人이 될 수 없고, 어떻게 實用化하여 産業에 값싸게 應用토록 할 것인가가 매우 重要하다.

둘째로 會員들간 技術정보 交流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學會 活動 分野의 細分化 및 活性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學會의 가장 큰 機能은 學術情報 및 技術情報의 提供및 交流라 하겠으나 國內 學術이나 技術水準의 脆弱으로 만족할만한 水準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많은 會員들이 海外 雜誌에서 필요한 情報를 蒐集하거나 資料의 不足으로 最新 技術動向을 接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情報 媒體로서의 機能 提高가 當面과제라 생각된다.

學會誌나 論文誌를 받아 볼때 대부분의 내용이 관심밖의 論文들로 채워져 있어 會員에 依해 읽혀지지 않고 外面당한다면 資源의 낭비일 뿐이다.

같은 電氣分野라 하지만 會員 각 個人이 直接 관여하고 있는 分野는 어느 특정한 分野이므로 技術情報 交流나 討議 對象은 주로 일정한 分野에 한정되게 마련이다.

資料提供의 媒體 역할을 成功的으로 하기 위해서는 分野를 細分化하고 多樣化해서 각 分野別로 創意的인 論文의 發表와 함께 高度의 學術的 內容이 아

니라 하더라도 現場에서는 實質的 問題가 되는 點들을 討議할 수 있는 場이 보다 폭 넓게 提供되어야 한다.

또한 專門技術分野를 深度있게 論하고 産業生産과 직결할 수 있는 學術講演會나 技術講習會등을 活性化하면 産業生産에 필수적 條件인 專門技術의 交換은 물론 學界·産業界·學會간의 굳건한 유대도 强化될 것이다.

다음으로 會員間의 親睦圖謀도 중요한 한 任務이다.

學會의 母體가 會員들이므로 學界·研究所·産業界 會員들의 親睦圖謀가 學會發展의 좋은 道具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各界 上位職들의 參與 및 後援이 필수적이다.

技術이나 學問에의 조언 및 技術交流도 會員間의 돈독한 親睦이 바탕이 될 때 더욱 圓滑해질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되며, 이를 위한 方案으로 會員들에게 흥미가 되는 각 會員社 또는 會員個人의 동정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學會誌에 좀더 많은 紙面을 할애하고 純粹 學術活動 이외의 多樣한 手段이 親睦圖謀를 위해 模索되어야 할 것이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의 電氣分野가 技術的으로 크게 성장한 10年이었으며, 1990년대는 이를 바탕으로 21세기의 先進技術國으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時期로 産·學·研이 혼연일체가 되어 産業發展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電氣學會가 倍前의 努力을 기울여 그 媒體 役割을 보다 充實히 해 줄것을 기대해 본다.